



Review Article / 종설

『診解臘藥症治方』의 납약에 대한 고찰  
-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  
연지혜<sup>1,2</sup>, 김정민<sup>1</sup>, 금가정<sup>4</sup>, 장아령<sup>5</sup>, 김상찬<sup>2,3</sup>, 송지청<sup>1,3\*</sup>

<sup>1</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글로벌방제연구센터

<sup>3</sup>제한동의학술원

<sup>4</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sup>5</sup>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A Study on Prescriptions as Napyak of *Eonhaenapyakjeongchibang*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Yeon Jihye<sup>1,2</sup>, Kim Jungmin<sup>1</sup>, Keum Gajeong<sup>4</sup>, Jang Aryeong<sup>5</sup>, Kim Sangchan<sup>2,3</sup>, Song Jichung<sup>1,3\*</sup>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2</sup>MRC-GHF,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5</sup>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Napyak has known as the herbal medicine, that kings of the Joseon dynasty bestowed on the royal officers around the last day of the each year. There are several researches on Napyak but those are focused the meaning itself, bibliographical studies on Unhaenapyakjeongchibang(which is the text related to Napyak), system in Joseon dynasty related to Napyak and so on. This articles is subject to research the real usage and medical meaning through record of Joseon dynasty.

**Method** : Prescriptions of *Unhaenapyakjeungchibang* were browsed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and compared the main disease of prescriptions with the records above.

**Result** : The main disease of prescriptions were corresponded with real usage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except a few cases. And the new meaning of Napyak could be defined as the herbal medicine, that kings of the Joseon dynasty bestowed on the royal officers and all people to cure emergent disease around the last day of the each year.

**Conclusion** : This research is for focusing the real usage of the Napyak through *Unhaenapyakjeungchibang* prescription but this research is for the medical record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Hereafter, the medical records researches could be conducted by real usage of prescriptions.

**Key words** : Napyak, *Unhaenapyakjeungchiba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Royal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

## I. 서론

납약(臘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납일(臘日)에 즈음하여 임금의 신하에게 하사하는 약의 하나로, 납제(臘濟)라고도 한다.”<sup>1)</sup>는 것이다. 즉 동지 다음 셋째 미일(未日)인 납일에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 여러 가지 환약(丸藥)을 지어 올리면 임금은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대표적인 납약으로는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안신환(安神丸)·소합환(蘇合丸)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납약은 대개 왕이 납일에 신하에게 하사하는 약으로 이해되어 왔다.

기존 납약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sup>2)</sup>, 김<sup>3)</sup>, 서<sup>4)</sup>는 세시풍속 가운데 납약의 의미를 살폈으며, 신<sup>5)</sup>, 이<sup>6)</sup>, 이<sup>7)</sup>는 납약을 다루고 있는 『診解臘藥症治方』의 역사적, 서지학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김<sup>8)</sup>은 납약의 본초에 대해 살폈으며, 김<sup>9)</sup>은 납약관련 의료제도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납약 자체에 대한 연구나 납약의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고찰된 바가 없었고, 납약이 기존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납약의 의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납약 연구 대상 의서로서 『언해납약증치방』이 주로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선 중기 허준의 저작이라 판단되는 『언해납약증치방』은 납약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 전문의서로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다. 왜냐하면 『언해납약증치방』은 납약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납약의 증상에 따른 사용방법과 복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해납약증치방』에 수록된 37종 처방들은 당시 운용되던 납약들 중 많이 이용되고 알려진 대표적인 납약들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해납약증치방』에 수록된 처방의 실제 사용례를 살펴보는 것은 납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납약의 실제 사용례를 찾아보던 중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에 『언해납약증치방』 처방과 동명(同名)의 처방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동명의 처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언해납약증치방』의 처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으나 국가기록에 등장하는 처방들이 어의(御醫) 허준의 저서인 『언해납약증치방』의 처방명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언해납약증치방』 처방을 토대로 납약의 실제 사용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Jichong So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nny University, 1, Hanui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do, 38610, Republic of Korea.

Tel: +82-53-819-1826, Fax: +82-53-819-1850, E-mail : prunedias@gmail.com

•Received : April 24, 2018 / Revised : May 26, 2018 / Accepted : May 28, 2018

## II. 연구방법

우선 『언해납약증치방』에 수록된 납약 37종을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이용하였다.)에서 찾아보았다. 각 처방을 역대 왕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들 기록 중 실제 병증에 사용된 기사들을 『언해납약증치방』 처방 순서에 따라 발췌하였다. 다만 『언해납약증치방』 처방 중 加減薄荷煎元, 解毒雄黃元, 九痛元, 溫白元, 靈寶丹, 備急元, 捉虎丹, 鬼哭丹, 勝金丹, 安胎丸, 稀痘癍紅元, 至聖寶命丹 등 12종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등장하지 않으며, 木香保命丹, 龍腦膏, 萬病元, 玉樞丹, 臘膏香 등 5종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납약으로 공납하는 내용으로만 나와 있고 병증치료에 사용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처방은 총 20종이다.

고찰에서는 발췌한 기사들이 『언해납약증치방』 처방의 주치증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언해납약증치방』 처방들이 실제 사용례를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인용하는 경우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예)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217권, 선조 40년 10월 9일 무진 1번째기사 => (선조217:40.10.9:1)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05책 (탈초본 5책) 인조 27년 5월 4일 임술 5/7 기사 => (승105인조:27.5.4:5/7)

또한 고찰에서 인용한 원문은 ‘김신근 주편, 한국 의학대계 제41책, 서울, 여강출판사, 1992.<sup>10)</sup>의 내용으로 페이지수만 기재하였다.

## III. 본론

### 牛黃清心元

선조 40년 새벽에 한기가 엄습하여 선조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東宮과 藥房의 都提調, 提調, 副提調 등이 입시하여 清心元, 蘇合元 九味清心元 등을 번갈아 올려 의식을 회복하였다(선조217:40.10.9:1).

인조는 자신의 병때문에 李馨益에게 火鍼 시술을 받던 중 열증과 한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었다. 『승정원일기』 기사에 주로 언제 火鍼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지만 藥房에서는 침을 맞는 것 이외에도 열증이 심할 때 우황청심원 한 두 알을 복용할 것을 권하였고(승105인조:27.5.4:5/7), 인조가 신열이 매우 높아 清心元을 여러 차례 복용하여 증세가 다소 진정된 일이 있었다(승105인조:27.5.7:4/5). 영조가 眩暈과 熱證으로 고생하면서 당시 기후가 陰濕하여 얼굴이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도제조와 부제조 등은 이 증상에 牛黃清心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승1030영조:24.6.6:9/9).

정조는 중기병을 앓고 있었는데(승1823정조:24.6.22:11/13), 하루는 잠을 자고 났더니 피고름이 많이 나와 이에 대해 藥院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였다(정조54:24.6.25:1). 또한 정조는 고름이 나온 후 처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몸에 熱氣가 많다고 하며 중기와 열기의 관계를 설명한 후 직접 龍腦安神丸과 牛黃清心元을 들이게 하였다(정조54:24.6.25:5, 승1823정조:24.6.25:17/17).

순조는 대왕대비가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소변이 短澀한 등의 병증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해 도제조 등 여러 관원들과 논의하고 牛黃清心元 한 알을 들이라 명하였다(승1889순조:5.1.11:23/23). 선조 11년 藥房의 도제조, 제조, 부제조가 入診한지 오래되어 다시 入診을 청하자 순조는 후일로 미루라는 명을 내리고 대신 牛黃清心元 한 알을 들이라고 하였다(승2008순조:11.10.28:16/16).

### 九味清心元

인조 9년에 慈殿이 배에 雷鳴이 있고 아프며 몸이 비틀리고 대변이 묽은 증세가 있었는데 이는 熱盛으로 그렇다 하고 九味清心元을 처방하였고(승32인조:9.1.19:3/13), 다음 날 慈殿이 九味清心元을 복용하고 熱氣가 잦아들었다.

효종 4년에 九味清心元처럼 아주 寒涼한 약을 효종 마음대로 처방하여 복용하여 의관들이 우려하는 기사가 있다. 이에 대해 효종은 본인이 스스로 처방내린 것은 熱氣 때문이었으니 복용하고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승127효종:4.4.13:2/9).

현종 즉위년에 癘疾과 유사하게 煩熱이 나므로 먼저 九味清心元 한 알을 金銀花煎에 타서 복용하였다(승156현종:즉위.6.5:12/23).

숙종 26년에 中宮殿에서 기별하기를 아침부터 계속

熱候가 있어 오후에 九味清心元 한 알을 진상하였는데도 밤에 虛煩한 증상이 있으니 獨蓼湯을 복용해야 마땅하겠다는 議藥廳의 啓告가 있었고(승394숙중:26.12.4;5/11), 40년에 숙중이 야간에 發熱과 膈氣가 낮지 않아 九味清心元을 복용하여 다음날 차도가 있었다고 하였다(승482숙중:40.3.6;6/7). 이후에도 45년까지 숙중은 계속 熏熱로 인해 九味清心元을 계속 복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조 3년에 嬪宮의 수면과 斑痕이 문제가 되었는데(승650영조:3.11.23;6/25), 며칠 뒤 藥房 도제조가 嬪宮의 증세가 어떠한지 묻자 영조가 좋아졌다고 대답하니(승650영조:3.11.28;5/28), 약방에서는 이미 복용하고 있던 牛黃膏를 중지하고 九味清心元을 처방하였다(승650영조:3.11.28;6/28). 또한 4년에 영조는 夜間煩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藥房에서는 黑豆竹葉茶와 九味清心元 한 알을 복용하도록 계를 올렸고(승674영조:4.11.13;3/7), 6년에 熱候가 심해지자 이미 복용하고 있던 冷性의 약에 추가로 九味清心元 두 알을 함방하여 연복해야한다는 약방의 계가 있었다(승700영조:6.1.26;6/20).

순조 1년에 순조가 口中熱候로 고생하자 도제조 등이 口中 外治方 외에도 九味清心元을 복용할 것을 청하였다(승1834순조:1.3.10;27/27).

### 蘇合元

태조가 痰이 성하여 蘇合香元을 복용하였는데, 병이 급박하게 변하여 清心元을 복용하려고 하였으나 삼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태종15:8.5.24;2).

태종대에 대마도 宗貞茂가 風病이 나서 清心元과 함께 蘇合元을 구하자(태종35:18.3.14;3), 이를 내려 보낸 일이 있었다(태종35:18.3.14;4).

중종대에 사신 李希雍이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 이질 증세로 고생을 하였고, 도중에 기력이 더욱 약해졌는데, 국경을 넘어서 꿩고기와 죽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蘇合元을 급히 먹었으나 삼키지도 못한 채 사망하였다(중종97:36.12.28;1). 또한 중종은 煩熱 증세가 있어서 井華水에 蘇合元을 타서 복용하였고(중종105:39.11.12;2), 이후 병세가 악화되었는데도 중종이 약을 복용하기 싫어하자 清心丸 등을 복용하게 하였으나 정신이 혼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蘇合元을 다시 진상하였다(중종105:39.11.14;1, 중종105:39.11.14;4).

선조 40년 선조가 기가 막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

고 의식이 들지 않으니 清心元, 蘇合元, 九味清心元 등을 번갈아 복용하고 정신이 돌아온 일이 있었고(선조217:40.10.9;1), 다시 호흡이 가빠지니 侍藥廳 관원이 입시하여 清心元 蘇合元을 다시 복용하였고(선조217:40.10.9;5), 이러한 증상이 이후에도 반복되었다(선조217:40.10.9;6). 의관들이 風症으로 보고 치료한 것이나 선조는 스스로 痰熱 때문이라고 보았고 찬 약제의 多用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선조217:40.10.10;2). 이후에도 선조는 기가 막히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광해[정조]1:즉위.2.1;4) 이에 藥房에서는 竹瀝 導痰湯 龍腦蘇合元 등을 올렸다(광해[정조]1:즉위.2.1;8).

인조 10년에 慈殿이 暑氣로 인해 熱이 심하자(승37인조:10.6.10;14/22) 竹瀝과 龍腦蘇合元을 복용하게 하였고(승37인조:10.6.10;21/22), 23년에 嬪宮이 기가 막혀 御醫들이 竹瀝과 蘇合元 獨蓼湯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승90인조:23.4.28;3/10), 譯官이 더위에 먼 길을 가야하니 清心丸 蘇合元 등을 救急藥으로 준비하게 하였다(승91인조:23.5.29;12/13). 한편 인조의 葬禮에 蘇合元을 수건에 적서 그 관을 닦은 예식이 있었다(승108효종:즉위.9.20;16/17).

효종 즉위년에 함경도에 퍼진 疫病을 치료하는데 清心元 蘇合元 등의 약이 필요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승106효종:즉위.6.22;15/27).

숙종 15년에 숙중이 胸腹 사이에 기가 역상하여 불편한 징후가 있어서 蘇合元 다섯 알을 복용하였고(승337숙중:15.8.29;2/7), 26년에도 흥격의 痞滯로 童便蘇合元 다섯 알을 복용하였으며(승392숙중:26.8.14;26/37), 같은 해 中宮이 胸膈에 逆氣로 통증이 있어서 수라도 못하는 증상에 童便에 蘇合元 다섯 알을 복용하였고(승393숙중:26.9.5;13/16), 35년에도 흥격의 氣滯로 蘇合元을 복용 후 진정되었다(승451숙중:35.12.16;7/17).

경종 4년에 경종이 胸膈이 불안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때 의관들이 진찰하고는(승572경종:4.8.20;18/22) 蘇合元 일곱 알을 올렸다(승572경종:4.8.20;19/22). 경종의 葬禮에도 蘇合元을 수건에 적서 그 관을 닦은 예식이 있었다(영조2:즉위.12.16;1).

영조 1년에 영조는 이전에 있던 疝氣로 아랫배에서 치밀어 오르는 통증때문에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으로 고생하였는데 도제조가 龍腦蘇合元을 사용하였고(승602영조:1.10.10;28/28), 20년에도 영조는 계속 疝氣로 진료를 받았는데 뜸뜨는 것을 감내할 수 없어서



蘇合丸 네 알을 복용하였으며(승1068영조:27.5.26; 29/29), 27년에도 疝氣로 고생하여 蘇合元을 복용하였다(승971영조:20.4.30;24/24). 또한 영종 42년에 영조가 霍亂으로 편찮아 內局에서 入診하여 正氣散, 蘇合元, 蟠蔥散을 올렸고(영조107:42.3.16;1), 며칠 뒤에도 수라를 들지 못할 정도로 병이 낫지 않아 正氣散 등을 복용하여 이전보다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었으나 이후 복통까지 심하게 나타나자 蘇合元을 橘薑茶에 타서 복용하여 치료하였다(승1253영조:42.3.19;12/12). 정조 2년 정조는 滯氣(승1415정조:2.3.6;35/35)가 있었고 다음날 霍亂氣(승1415정조:2.3.7;27/31)가 있어서 蘇合元을 복용하였고, 18년에 胸膈에 기가 치우되지 않은 사실(승1726정조:18.2.2;2/25)에 대해 약방에서 蘇合元 일곱 알을 올렸으며(승1726정조:18.2.2;14/25, 승1726정조:18.2.4;6/16), 19년에도 膈氣로 不換金正氣散, 蘇合元, 濟衆丹 등의 약을 복용하였다(승1743정조:19.4.1;18/22). 24년에 정조는 사도세자에게 酌獻禮를 올리며 오열을 하자 의관들이 진맥을 하고 蘇合元을 드렸다(정조39:18.1.13;2). 6월부터는 중기를 앓아 의관들이 지속적으로 정조를 진찰하고 약을 올렸는데 증세가 위중해지자 蘇合元을 올렸지만(정조54:24.6.28;5, 승1823정조:24.6.28;22/23) 6월 말에 昇遐하였다.

순조 즉위년에 정조의 昇遐로 대왕대비가 슬픔에 숨이 거칠어지자 童便蘇合丸을 올렸고(승1824순조:즉위.7.21;16/16), 이후에도 대왕대비전에 蘇合元을 올렸다(승1889순조:5.1.8;2/46, 승1889순조:5.1.10;28/28). 6년에 滯氣로 순조가 소합원을 세 알 복용하였고(승1910순조:6.4.5;31/32), 9년에 惠慶宮 洪氏(獻敬王后)가 기후가 靡寧하고 슬픈 감정이 커서 밤새 고생하여 蘇合元을 달여 올렸는데(승1967순조:9.5.29;17/17), 이후에도 惠慶宮 洪氏는 여러 차례 蘇合元을 복용하였다(승1967순조:9.5.29;17/17, 승2019순조:12.9.15; 27/28, 승2019순조:12.9.16;4/28, 승2025순조:13.2.21; 27/27, 승2048순조:14.7.17;3/27, 승2048순조:14.7.16; 24/24). 순조는 13년과 14년에 腹痛後重으로 麝香蘇合元을 복용하였고(승2029순조:13.6.27;12/12, 승2047순조:14.6.19; 21/21), 21년에 여러 지방에 怪疾이 아주 심하게 돌아 救急方으로 蘇合元을 준비하게 하자는 都提調의 청을 허락하였으며(승2144순조:21.8.15;38/38), 26년에 순조가 痰氣所滯로 蘇合元을 여러 제 복용하였다(승2201순조:26.3.25;19/20, 승2228순조:28.4.20;16/16).

### 至寶丹

중종 27년 중종이 心臟과 肺臟 사이에 熱氣가 있어 혀에 瘡가 생기므로 內醫가 至寶丹을 人蔘湯에 타서 올렸고(중종73:27.11.4;1), 33년에 이조참판이 熱病이 심해 중종이 至寶丹을 내렸다(중종88:33.9.2;2). 39년에 중종이 心熱과 갈증으로 고생하자 小柴胡湯에 清心元을 타서 올렸는데도 병세가 그치지 않아 至寶丹과 人蔘湯을 올렸으나(중종105:39.11.10;5, 중종105:39.11.11;3, 중종105:39.11.12;2)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중종105:39.11.15;9, 중종105:39.11.15;10).

숙종 37년에 숙종이 濕痰으로 고생하자 至寶丹과 清心丸 등을 진상하여 치료하였다(승464숙종:37.12.16;20/21).

### 龍腦安神丸

인조 11년 인조는 새벽부터 몸이 춥고 위축되었는데 식사 후부터는 열이 오르더니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흐릿해졌으며 가슴속이 두근두근하여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데다가 심하게는 호흡이 가빠져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과 구미청심원(九味清心元) 등의 약을 복용하고 진정되었다(승39인조:11.1.5;2/3).

숙종 2년에 慈殿의 胸脇刺痛에 攻伐하는 약만 투여할 수 없다고 하여 人蔘을 龍腦安心丸과 함께 進御하였고(승254숙종:2.6.3;4/17), 동시에 大王大妃는 水泄 후 증상은 사라졌으나 노곤하고 정신이 없는 증상 때문에 龍腦安神丸에 琥珀 가루를 넣어 복용하였으며(승3307숙종:14.8.21;2/16), 14년에도 大王大妃는 비슷한 증상으로 같은 약을 복용하였고(승330숙종:14.8.21;15/16), 숙종 15년 元子가 痰火로 고생을 하자 龍腦安神丸과 抱龍丸을 복용하여 구급증상을 구하고 다시 瀉靑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都提調가 啓하였다(승338숙종:15.11.8;20/20). 또한 40년에 숙종이 야간에 膈痰이 발작하여 罷漏 후에 竹瀝에 龍腦安神丸을 타서 복용하였으며(승486숙종:40.12.13;5/13), 며칠 뒤에도 비슷한 증세로 龍腦安神丸을 복용하였다(승486숙종:40.12.16;6/20). 41년에도 야간에 咳嗽할 때 喀痰과 膈間滯鬱이 있었기 때문에 竹瀝에 龍腦安神丸 두 알을 복용하였고(승487숙종:41.1.22;3/14, 승487숙종:41.1.23;3/11, 승487숙종:41.1.24;3/16), 이후에도 숙종은 지속적으로 膈間의 不利(승487숙종:41.1.24;3/16), 困惱(승488숙종:41.4.30;4/12), 飽滿(승488숙종:41.5.10;3/10), 명치의 滯氣(승487숙종:41.2.15;5/18), 熏熱(승488숙종:41.3.7;4/27) 등으로 龍腦安神

치를 복용하였다.

경종 3년에 醫官들이 王世弟를 진찰하고 眩氣를 염려하여 金銀花茶에 龍腦安神丸을 타는 처방을 내리겠노라고 경종에게 아뢰었다(승559경종:3.10.17;10/24). 영조 1년에 영조가 親祭를 지낸 후 眩氣가 심해져 竹瀝과 龍腦安神丸을 복용하였고(승594영조:1.6.15;6/37), 야간에 煩熱로 잠을 잘 못잘 때 복용하기 위해 忍冬茶에 龍腦安神丸 한 알을 복용하도록 藥房에서 啓를 올렸으며(승598영조:1.8.9;5/27), 4년에 煩渴症이 있을 때 金銀花茶에 龍腦安神丸을 타서 복용하도록 進御하였고(승671영조:4.9.22;5/11), 13년에 영조가 上氣 증상이 있었는데 이전에 進御한 龍腦安神丸을 복용하고 좋아졌으니 계속 進御하라는 기록이 있으며(승845영조:13.3.20;21/21), 14년에 영조가 膈煩이 있어 龍腦安神丸을 복용하였고(승882영조:14.12.11;7/18), 28년에 藥房에서 東宮의 斑疹이 透出된 후 열기가 좀 있어 加減消毒飲 외에도 龍腦安神丸을 사용해야 한다고 啓를 올렸으며(승1087영조:28.10.17;10/40, 승1087영조:28.10.19;9/22), 嬪宮이 面部 斑疹이 있었다가 사라진 후에 평안하니 약방에서 이전의 湯藥은 중지하고 乾葛竹葉茶에 龍腦安神丸을 타서 복용하도록 啓를 올렸고(승1087영조:28.10.29;8/49), 29년에 王世子가 감기가 걸린 후 풀어졌는데 간간이 咳嗽이 있으니 약방에서 이전의 湯藥은 중지하고 蘇橘茶에 龍腦安神丸을 타서 복용하도록 啓를 올렸다(승1094영조:29.5.9;9/59).

정조 24년 정조는 熱證이 있어서 龍腦安神丸 한 알을 竹葉 달인 물에 타서 進御하였다(승1823정조:24.6.25;17/17).

순조 5년 순조는 마마증세로 고생하였는데 熱證이 있어 의관들이 金銀花茶와 龍腦安神丸 한 알을 타서 진상하였다(승1890순조:5.2.27;7/7).

#### 牛黃涼膈元

효종 3년 효종은 감기와 인후질환으로 人蔘敗毒散을 복용하였는데(승125효종:3.12.7;3/14), 이후 藥房에서 다시 牛黃涼膈元 한 알씩 하루 세 알을 복용하도록 啓를 올렸다(승125효종:3.12.7;4/14).

현종 3년 현종은 咽喉가 부어 고생하였는데 藥房에서 牛黃涼膈元을 지어 올렸다(승177현종:3.12.29;2/11).

숙종 2년 숙종이 열이 많아 牛黃涼膈散 두 알을 井華水에 복용하도록 약방에서 啓를 올렸고(승254숙종:2.6.1;19/24), 35년 膈間滯氣에 牛黃涼膈散을 복용

하고 진정되었다(승451숙종:35.12.12;7/19). 한편 40년에 숙종이 熏熱과 困惱, 심한 咳嗽, 부종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증으로 고생하자 牛黃涼膈元을 처방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승483숙종:40.4.28;6/10), 44년에도 목이 마르는 증상, 困惱, 밤새 呻吟, 熏熱, 煩熱로 잠을 잘 못이름, 膈間이 불편한 증상 등으로 牛黃涼膈元 네 알을 복용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승506숙종:44.1.10;기미]3/19). 영조 12년에 嬪宮이 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자 의관들이 牛黃涼膈元을 처방하였다(승829영조:12.7.7;9/23).

#### 瀉青丸

숙종 15년 元子가 痰火로 고생을 하자 龍腦安神丸과 抱龍丸을 복용하여 구급증상을 구하고 다시 瀉青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都提調의 啓가 있었고(승338숙종:15.11.8;20/20), 25년에 王世子の 안질에 涼肝하는 藥을 복용하여 熱을 내리자며 瀉青丸을 복용하도록 약방에서 啓를 올렸다(승383숙종:25.1.30;4/10).

#### 水煮木香膏

현종 15년 慈殿이 痢症으로 고생을 하자 侍藥廳에서 우선 水煮木香膏를 예비해 두겠다고 청한 啓가 있었고(승238현종:15.2.23;5/16), 같은 해 현종이 泄瀉가 있어 水煮木香膏를 복용하여 설사 증상은 감소하였으나 胸膈에 煩鬱이 생기고 呼吸促急 등의 증상이 더 심해져 다른 약을 의논하는 내용이 있다(승241현종:15.8.18;3/24).

숙종 4년 숙종이 胃에 滯症이 있어 痢疾로 고생을 하자 水煮木香膏와 蓼歸芍藥湯을 進御하였으나(승265숙종:4.7.11;19/20, 승265숙종:4.7.12;8/13), 증세가 더욱 심해져 水煮木香膏와 蓼歸芍藥湯을 중지시켰고(승265숙종:4.7.12;9/13), 다음날 다시 水煮木香膏와 더불어 異功散을 進御하였다(승265숙종:4.7.13;3/9). 14년에 大王大妃가 水泄증상이 있어 水煮木香膏를 올렸다(승330숙종:14.8.20;3/28).

#### 感應元

태종 18년에 誠寧大君이 風證이 있어 약을 복용한 후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났기 때문에 感應元과 貨金飲子를 올렸으나 복용을 거부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태종35:18.4.4;1).

### 神保元

숙종 29년에 숙종이 上氣 증상으로 淡薑湯 과 神保元 열아홉 알을 進御하여 효과를 보았고(승414숙종:29.8.26;22/26), 이를 후 숙종이 膈間에 당기는 통증이 있어서 行氣香蘇散을 복용하고 통증이 좀 가신 후 완전히 그치지 않아 神保元 열다섯 알을 다시 進御하였다(승414숙종:29.8.28;9/20).

### 好合茵陳丸

선조 27년 선조가 진교하길 기근 끝에 봄이 오면 癘疫이 성할 것을 대비하여 清心元과 好合茵陳丸을 지급하도록 하였고(선조47:27.1.2;1), 광해군 4년 함경도에 전염병이 극심하여 好合茵陳丸을 보내도록 청하였다(광해군[정초]59:4.11.1;13, 광해군[중초]21:4.11.1;15).

### 紫金丹

선조 36년에 중전이 산후에 복통을 앓자 이를 위해 紫金丸에 오령지 몰약을 가하여 進御하였다(선조162:36.5.22;2).

중종 5년에 중종이 寒氣로 다리가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眩氣가 있어 신음을 하니 紫金丹 두 알을 進御하여 치료하였다(숙종59:43.3.23;2).

### 脾寒丹

숙종대 王世子가 霍亂이 있어서 脾寒丹을 올렸다(승450숙종:35.8.6;9/22).

### 保安丸

숙종 41년에 숙종은 다양한 증세들로 고생을 하였는데, 1월 16일에 이전에 복용하던 湯藥을 잠시 정지하고 保安丸을 生薑茶에 타서 進服할 것을 논하였고(승487숙종:41.1.16;11/16), 같은 해 5월 숙종이 煩熱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열증으로 고생하며 膈間이 불편하여 飽滿의 기운이 있고, 口淡과 야간에 부종의 증상등으로 고생을 하자 保安丸을 처방하였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승489숙종:41.5.19;5/8).

### 催生丹

선조 37년에 中殿의 難産을 염려하여 催生丹을 진어

하였는데 결국 死胎를 낳았다(선조181:37.11.17;1).

### 小兒清心元

숙종 15년 元子가 驚風이 발생하여 小兒清心丸을 준비하였다(승338숙종:15.11.19;14/14).

### 錢氏安神丸

현종 15년 현종이 咽喉病으로 차도가 없어 錢氏安神丸을 처방하였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자 琥珀犀角膏와 麥門冬湯을 함께 올리고자 하였다(승239현종:15.4.21;8/22).

### 抱龍丸

숙종 15년 元子가 痰火로 고생을 하자 龍腦安神丸과 抱龍丸을 복용하여 구급증상을 구하고 다시 瀉靑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都提調의 啓가 있었고(승338숙종:15.11.8;20/20), 이후에도 抱龍丸을 처방하였으나(승338숙종:15.11.10;17/17) 抱龍丸은 峻劑로 多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승338숙종:15.11.19;14/14). 40년에 抱龍丸을 복용한 뒤 熏熱과 膈間의 痰滯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숙종의 전언이 있었다(승486숙종:40.12.10;13/26).

### 牛黃抱龍丸

영조 4년에 東宮이 木氣가 성하고 土氣가 허약하여 정신이 혼미한 질환이 발생하자 牛黃抱龍丸을 처방하였으며(승674영조:4.11.9;31/32), 31년에도 東宮의 기후가 허약하여 牛黃抱龍丸을 올리려고 하였다(승1124영조:31.10.13;22/26).

### 神聖辟瘟丹

영조 22년 영남지역에 역질이 치성하자 선조대 허준이 神聖辟瘟丹으로 치료한 일을 언급하여 이를 각 도에 보내자고 하였다(승1001영조:22.4.12;26/29).

## IV. 고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언해납약 증치방』 처방의 주치증을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Table 1. Main Disease of Prescriptions of *Unhaenapyakjeungchibang*

處方名	主症
牛黃清心元	1) 中風不語 恍惚煩鬱 痰熱 傷寒發熱 心氣不足 神志不定 一切病發熱等症(305) 2) 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澁 口眼喎斜 手足不收(305)
九味清心元	症治與牛黃清心元同 而治熱之功 尤捷(307)
蘇合元	1) 傳尸鬼氣 卒心腹痛 霍亂 時氣 瘴癘 暴痢赤白 月閉 痲癩 小兒吐乳 大人狐狸等疾(307) 2) 一切氣痰 及中風上氣 氣逆 氣鬱 氣痛(307)
至寶丹	1) 中風不語 諸毒 山嵐瘴氣 蠱毒 肉毒 水毒 產後血暈悶亂 難產(311) 2) 小兒諸癩 急驚 卒中客忤 不得眠煩燥 風搐 卒中風 不省人事 及風中臟 精神昏冒(311)
龍腦安神丸	五般癲癩 無問遠近 發作無時(315~316)
牛黃涼膈元	咽喉腫痛 口舌生瘡 頰頰赤腫 熱痰壅塞 除風熱 消瘡疹(317)
瀉青丸	1) 肝熱急驚 搐搦(321) 2) 眼疾(321)
水煮木香膏	1) 脾胃受濕 臟腑滑 泄無度 腹痛腸鳴水聲 不思飲食 每欲下痢 裏急後重 或下赤白便膿(322) 2) 一切諸痢(322)
感應元	虛中積冷氣弱 有傷飢飽飲食 心下脅間堅滿 霍亂嘔吐 久痢赤白 膿血相雜 米穀不化 中酒嘔吐 惡心頭旋 四肢倦怠 妊娠傷寒 小兒傷滯 赤白或進或退 連綿不止(324)
神保元	1) 諸氣注痛(329) 2) 心膈痛 腹脅痛 腎氣痛(329)
好合茵陳丸	天行病急黃 及瘡癘發黃 熱病熱毒 入裏發狂(348)
紫金丹	蠱毒 狐狸鼠蟻 惡菌河豚 死牛馬肉毒 山嵐瘴氣毒 諸藥金石草木 鳥獸百蟲一切諸毒 癰疽惡瘡癰疹赤瘤丹腫(350)
脾寒丹	諸瘡(357)
保安丸	產前產後諸疾竝用(359)
催生丹	產婦生理不順 產育艱難 或橫或逆(360)
小兒清心元	諸熱及驚熱煩燥(360)
錢氏安神丸	1) 邪熱驚啼 心疳面黃 頰赤壯熱(362) 2) 急驚風 及心熱驚啼(362)
抱龍丸	驚風潮搐 身熱昏睡 能下痰熱喘急(365)
牛黃抱龍丸	小兒急慢驚風 痰嗽潮搐 及傷風瘟疫 身熱昏睡氣羸 風熱痰實壅 嗽喘急 一切發熱(366)
神聖辟瘟丹	留傳在世間正元焚一炷四季保平安(369)

『언해남약증치방』 처방의 주치증과 본문에서 언급한 『조선와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牛黃清心元

선조의 한기염습으로 인한 의식불명, 인조의 한열왕래와 발열, 영조의 열증, 정조의 열증 등이 牛黃清心元 주치증과 상관관계가 있다. 다만 순조는 구토와 小便短澁 등의 증상을 알았는데 병의 원인이 熱로 인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九味清心元

인조의 증상, 효종의 熱證, 현종의 煩熱, 숙종의 虛煩과 熏熱, 영조의 夜間煩熱, 순조의 口中熱候 등이 九味清心元의 주치증과 상관관계가 깊다. 또한 영조 대 빈궁의 수면문제 및 斑痕 증상도 열증과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 蘇合元

태조의 痰盛, 태종대 宗貞茂의 風病, 중종대 사신 이희용의 이질, 중종의 번열과 혼수상태, 선조의 인사불

성과 氣鬱, 인조대 嬪宮의 氣鬱, 효종대 疫病 치료, 숙종의 胸腹氣逆과 氣滯, 경종의 胸膈불안, 영조의 下腹痛과 霍亂, 정조의 滯氣와 霍亂, 순조대 대왕대비의 氣逆과 獻敬王后의 氣逆으로 인한 정신문제 그리고 지방의 怪疾을 치료하기 위한 구급방과 순조의 痰氣所滯 등이 蘇合元의 주치증과 상관관계가 깊다. 특이한 것은 장례를 치를 때 소합원을 이용하여 관을 닦는 예식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蘇合元의 주치증은 아니나 疝氣를 치료하는 경우와 슬픔 등 정신적인 이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蘇合元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氣機의 逆上이나 氣痛 등에 蘇合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蘇合元은 처방구성에 따라 龍腦蘇合元, 麝香蘇合元, 童便蘇合元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牛黃涼膈元

효종의 감기로 인한 인후질환, 현종의 인후질환, 숙종의 열증, 膈間氣滯, 困惱, 심한 咳嗽, 부증, 불면, 영조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이 牛黃涼膈元의 주치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瀉青丸

숙종대 王世子の 안질치료가 瀉青丸의 주치증에 해당 된다.

#### 水煮木香膏

현종대 慈殿의 痢疾, 현종의 泄瀉, 숙종의 胃滯症 등이 水煮木香膏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 神保元

숙종의 上氣, 膈間痛症 등이 神保元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 好合茵陳丸

선조대 癘疫 치료를 위해 好合茵陳丸을 준비한 것이 好合茵陳丸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 催生丹

선조대 中殿의 難産은 催生丹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 小兒清心元

숙종대 元子の 驚風은 小兒清心元의 주치증과 일치

한다.

#### 抱龍丸

숙종대 元子の 痰火, 숙종의 熏熱과 膈間痰滯는 抱龍丸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 牛黃抱龍丸

영조대 東宮의 정신혼미는 牛黃抱龍丸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다만 東宮의 정신혼미는 열증과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이 된다.

#### 神聖辟瘟丹

영조대 영남지역 역질에 神聖辟瘟丹을 이용한 사실은 神聖辟瘟丹의 주치증과 일치한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해납약증치방』 처방의 주치증과 본문에서 언급한 『조선와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들이 대부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몇몇 처방은 주치증과 기사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 至寶丹의 경우 중증은 心肺熱氣로 瘡이 생겨 至寶丹을 사용하였고, 다른 기사에도 주로 熱證에 사용하였으며, 숙종은 濕痰으로 고생하였을 때 至寶丹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至寶丹의 주치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 보인다. 중증의 질환의 경우 至寶丹의 주치증 중 煩燥나 急驚風 등 熱證과 관련된 것이 있고 숙종의 질환도 山嵐瘴氣의 원인과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다만 至寶丹의 실제 사용례는 至寶丹의 주치증인 中風이나 急驚風 등 중증질환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龍腦安神丸의 경우 인조의 발열과 眩暈과 호흡곤란, 숙종대 자전의 胸脇刺痛과 대왕대비의 水泄 후 정신혼미와 원자의 痰火와 숙종의 膈痰발작, 膈間滯鬱, 困惱, 飽滿, 명치의 滯氣, 熏熱, 경종대 왕세가의 眩暈, 영조의 眩暈·煩熱로 인한 불면, 煩渴症, 上氣, 膈煩과 영조대 동궁 및 嬪宮의 斑疹, 정조의 熱證, 순조의 마마증세로 인한 열증 등에 龍腦安神丸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龍腦安神丸의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癲癇의 증상이 精神昏迷 등이 있고, 癲癇의 원인이 痰熱, 痰火 등이므로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는 龍腦安神丸의 주치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3. 感應元의 경우 태종대 誠寧大君이 風證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땀을 지나치게 흘린 경우에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感應元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4. 紫金丹의 경우 선조대 증전의 산후복통과 증종의 眩暈에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紫金丹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5. 脾寒丹의 경우 숙종대 王世子の 癰亂에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脾寒丹의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6. 保安丸의 경우 숙종의 煩熱, 膈間不利, 口淡, 야간 부종 등에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保安丸의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7. 錢氏安神丸의 경우 현종의 咽喉病에 錢氏安神丸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全氏安神丸의 주치증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錢氏安神丸이 안면의 熱證을 다스리는 처방이라면 현종의 咽喉病 치료에도 효과가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20개 처방 중 7개 처방의 경우 『언해납약증치방』에 기재된 주치증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이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물론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처방의 구성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이름만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로는 처방의 구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언해납약증치방』 처방 주치증에 병인병기가 기재된 것은 아니므로, 병증은 상관없어 보이더라도 납약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병인병기상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본문에서 살펴본 납약이 주로 위급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즉, 납약이 대부분 丸, 丹, 膏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납약이 보관이 용이한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관이 용이한 형태의 제작 목적은 앞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보듯 납약이 대부분 응급질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약의 사용처가 왕과 신하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까지도 확대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효종이 막역(瘼疫)에 납약을 사용했던 예(승106효종:즉위.6.22;15/27)도 그러하며 정조의 경우도 병이 든 군사에게 납약을 하사한 일(승88정조:13.10.5;41/41)

이 있었다.

## V. 결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들에서 『언해납약증치방』에 수록된 납약 37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결과, 37종 중 20종에 대해 의학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20종 또한 각 종류별로 그 자료의 양과 기록의 구체성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여전히 종종 이용하는 牛黃清心元과 蘇合元 등에 관련된 기록들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언해납약증치방』에 기재된 처방의 실 사용례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처방의 주치증과 실 사용례가 대개 일치하였다. 다만 일부 처방의 경우 『언해납약증치방』에 기록된 주치증과 실제 사용례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병인병기적 측면에서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납약이 응급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준비된 응급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과 왕, 왕족, 신하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납약은 세시풍속의 의미로 왕이 납일에 신하에게 하사한 약이라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응급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의 의미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록 이번 연구가 『언해납약증치방』 처방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실제 사용례를 살펴보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재된 수많은 의안들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내 여러 의안들을 분석하여 한의학 연구분야 중 의안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2R1A5A2A42671316)

## References

1.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450&cid=40942&categoryId=32175> search date : May, 26<sup>th</sup>, 2018
2. Seo KS. A review of Nabil custom and its extinc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J. of Historical Research*. 2016;63:67-94.
3. Kim HG. The Annual Customs and Affliction in Royal Family of Joseon Dynasty. *J. of Korea Society For Historical Folklife Studies*. 2010;33:187-233.
4. Seo GS, Park MH. Nabil and Its Function in the Chosun Dynasty. *Jindanhakbo*. 2014;122:89-177.
5. Shin DW. Napyak, 『Un hae nap yak zung chi bang』, and Hur jun. *J.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2000;13(2):23-8.
6. Lee HS. A Study of Eunhae Bukonsinbang and Eunhae Napyakjungchibang in the 17th Century of Chosun Dynasty. *The Korean Cultural Studies*. 2008;14:233-71.
7. Lee JH. Bibliographic Study of Existing Nabyakjeungchibang and Eonhaenabyakjeungchiba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2013;56:353-69.
8. Kim SK. Crud Drugs of the Rhee Dynasty. *Korean Journal of Pharmacognocoy*. 1981;12(1):76.
9. Kim SS. The Actual management of the Central Medical Institutions in 16~17 Century.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2003;20:65-100.
10. Kim SK. *Hangukeuihakdaegy* Vol. 41. Seoul. Ryeongang Press. 1992.
11.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
12.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nseon Dynasty*. <http://sjw.history.go.kr>